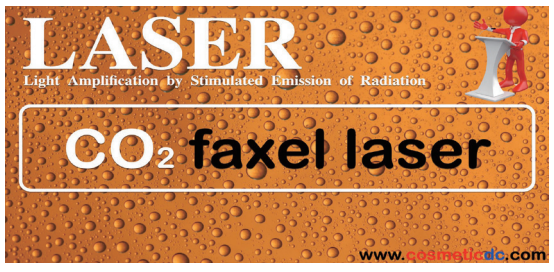
〈44면에 이어 계속〉

4-5 CO2 프락셀의 용도(그림 12~14)



(그림12)



(그림13)



(그림14)

CO2 프락셀은 CO2 레이저 한 가닥을 여러 가닥으로 분리해 피부에 조사함으로써 피부미용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즉 한 줄기의 CO2레이저는 피부에 큰 구멍을 내서 피부를 파괴하지만 그 한줄기를 100가닥으로 쪼개서 1/100의 적은 파워로 일정 간격을 두고 100개가 피부에 조사되면 피부는 1/100의 상처를 받지만 파괴대신 피부 수축과 재생이 일어난다. 즉 새살이 돋는 것이다. CO2 프락셀은 표피단계에서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프락셀인 Er:Glass fraxel은 더 깊은 진피 단계에서 피부재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두 프락셀을 함께 사용하면 표피와 진피의 피부에서 피부 재생이 일어나서 피부가 젊어지는 것이다.

4-6 CO2 레이저의 사용법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우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환자에게 보안경을 낀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술자는 좀 더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 2배율 확대경을 사용한다. 얼굴에서 시술부위를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 초기형의 옅은 갈색의 검버섯 또는 기미 등이 얼굴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 있다. 확대경이 없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4-7 CO2 레이저 시술을 위한 마취(그림 15)



(그림15)

마취크림으로 얼굴 시술 부분 또는 전체를 바른 후 마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랩으로 덮어 준 후 30~40분을 기다린다. 그 후 마취크림을 부드러운 거즈 또는 일회용 해면으로 제거한다.

4-8 CO2 레이저 시술을 과정(그림 16,17)



(그림16)



(그림17)

얼굴을 세안크림 또는 클린싱크림으로 세안 시킨다. 마취크림을 바른다. 마취크림을 닦아준다.

시술한다. 시술 부위에 마데카솔 등으로 wet dressing 해준다. 시술 부위가 크고 많은 경우에는 항생제와 소염진진통제 3일 투여한다.

4-9 CO2 레이저 세팅(그림 18)



(그림18) www.cosmeticdc.com

CO2 레이저 제품마다 세팅 값이 다르다. 저자의 치과에는 2대의 CO2 레이저가 있다. 한 대는 구형 CO2 레이저전용이고 또 한 대는 신형으로 프락셀도 가능한 다용도 복합 CO2 레이저이다. 구형은 세팅 값을 직접 수동으로 세팅을 해야 하지만 신형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 수동도 가능하다. 사용하다가 보면 환자의 피부상태에 따라서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세팅하게 된다. 처음 세팅은 제일 낮은 파워로 시작해서 피부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보고 점차 올려가면서 세팅시킨다. 예를 들어 검버섯을 없앨 때 MODE는 continuos mode, power는 0.1w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레이저를 조사해보고 power값을 올린다. 그럼 언제 power값을 올려야 할까? 여러분이 사용해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메스로 피부를 절개할 때 느낌이랄까!

4-10 CO2 레이저 시술

CO2 레이저는 날카로운 송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CO2 레이저 팁은 수직 또는 사선으로 각도를 줘서 시술을 한다. 시술 깊이는 표피에 한하고 진피내로 깊이 시술하지 않는다. 점 같은 경우에는 3~5회로 나누어서 얕은 깊이로 1개월 간격으로 시술한다. 한 번에 깊이 시술이 되면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을 만든다. CO2 레이저 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 두꺼운 검버섯이나 점, 비립종 등을 제거할 때는 CO2 레이저 팁을 수직으로 세워서 하고 초기 갈색 검버섯이나 얕은 기미 등은 CO2 레이저 팁을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시술을 한다. 팁을 수직으로 세워서 한 포인트로 집중하면 구멍을 뚫게 되지만 팁을 움직이면 스크레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림에서 보시면 초기 갈색 검버섯에 팁을 사선으로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검버섯은 볼록 형태의 모양이라서 CO2 레이저가 지나간 곳은 하얗게 보입니다. CO2 레이저가 검버섯을 삶아버린 자국입니다. 그 곳은 그림처럼 3일 후 암갈색 딱지가 생기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딱지가 떨어지면 붉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런 피부색으로 변화합니다.

4-11 CO2 레이저 시술 후 케어(그림 19)



(그림19)

CO2 레이저 시술 후에는 검버섯이나 기미, 점 등은 마데카솔 연고를 1주일 동안 바르게 합니다. 햇빛은 피하고 세안할 수 있고 세안 후 마른 상태에서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면 됩니다. 즉 wet dressing을 유지해 줍니다. 만일 큰 고 깊은 주위의 시술이 이루어지면 모양에 맞게 듀오덤 등을 붙여준다.

4-12 CO2 레이저 시술 후 주의사항(그림 20)



(그림20)

CO2 레이저 시술과 CO2 프락셀 레이저의 시술 과정이 다르고 시술 목적도 다르고 시술 후 케어도 다르다. 여기서는 CO2 레이저 시술 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CO2 레이저는 피부를 불로 지져 놓은 것과 같다. Wet dressing을 위해서 마데카솔 등을 1주일 동안 계속 발라준다. 세안 후에도 발라준다. 이틀 후부터 딱지가 생기고 2~3일은 몸시 가렵다.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일주일 후엔 자연스럽게 딱지는 떨어지며 그 부위는 빨갛게 되며 그 후 점차 피부색을 찾는다.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wet dressing 상태에서 화장이 가능하다. 가끔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데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라고 하며 이것은 피부의 정상적인 상처 치유과정으로 나타나며 염증반응 후에 염증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멜라닌 색소침착현상이다. 환자의 유전적인 성향과 자외선, 화장품,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이 증폭작용을 한다.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미백연고를 바르면서 피부를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병행한다.



최재영 원장
· 아름다운얼굴치과 원장
· 서울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 회장
· Face Clinic Club 회장